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8장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산상설교』 하권 제38장, 인쇄 103~116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19~24

> ❓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데, 돈과 성공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 장에서 다룬 명령, 곧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는 명령에서 출발한다. 그는 주님이 이 명령에 굳이 이유까지 붙여 주신 것을 은혜로 본다. 또 이 말씀이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경고라는 점을 먼저 못 박는다. 이어서 세속성은 특정한 죄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내가 어디에 보물을 쌓는지 점검하는 기준 네 가지를 제시한다. 그다음 주님의 두 가지 논거를 차례로 푼다. 첫째, 땅의 보물은 썩고 빼앗기지만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둘째, 땅의 보물은 마음(감정), 정신(생각), 의지(행동)까지 사람 전체를 지배한다. 결론은 24절의 양자택일이다. 하나님과 재물은 둘 다 사람 전체를 요구하므로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모욕이라는 경고로 설교가 끝난다.

📜 절별 정리

📜 1.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경고 — 세속은 '태도'다

로이드 존스는 먼저 주님이 명령만 하지 않고 이유까지 설명해 주신 점에 주목한다. 주님은 명령할 자격이 충분하시다. 그런데도 우리 연약함을 입고 오셔서 논리적으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이 말씀과 상관없다”는 생각이 가장 치명적이다. 사람들은 세속을 '내가 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속성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태도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일 속에도 스며들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잠시 본론에서 벗어나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을 내놓는다. 총선거 때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진짜 관심은 결국 '땅의 보물'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첫째 기준은 동기다. 내가 특정 정치 의견을 내세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 둘째 기준은 감정이다. 그 문제에 내 신랄함, 분노, 경멸, 격정이 얼마나 실려 있는가. 감정은 거의 언제나 땅의 보물에 대한 관심에서 터져 나온다. 셋째 기준은 초연함이다. 나는 이런 일을 나그네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는가. 그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옳고 의무라고 분명히 말한다. 문제는 관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느냐다.

1. 주님은 명령에 이유까지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2. 이 경고는 불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다
3. 세속성은 특정 행위가 아니라 삶의 태도다
4. 점검 기준: 동기, 감정의 격렬함, 나그네의 초연함
5. 세상일에 관심 두기는 의무지만 지배받으면 안 된다

> **마태복음 6:19**
>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자 점검의 대상
>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 **마태복음 6:20**
>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긍정 명령. 소유와 재능을 모두 이렇게 쓰라는 뜻
>
>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 **마태복음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24

이 단락 전체가 향하는 결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속적인 것이란 삶에 대한 하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 2. 첫째 이유 — 땅의 보물은 사라지고, 하늘의 보물은 남는다

주님의 첫째 논거는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다. 땅의 보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로이드 존스는 '좀과 동록'을 여러 겹으로 풀어낸다. 첫째, 땅의 것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도 또 다른 것을 원한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둘째, 우리는 땅의 것에 싫증을 낸다. 그래서 늘 새것을 찾고 유행이 바뀐다. 나이에 따라 좋아하는 것도 달라진다. 셋째, 그 안에는 불순함이 있다. 화학약품으로 녹을 막을 수 없듯이, 아무리 애써도 그 안의 부패는 없앨 수 없다(베드로후서 1:4). 넷째, 결국 모두 사라진다. 꺾은 꽃은 그 순간부터 시든다. 가장 건강한 몸도, 가장 아름다운 얼굴도, 천재의 재능도 무너진다. 그는 진선미를 숭배하는 철학자들의 실패를 가장 서글픈 실패로 꼽는다. 이 세상에는 완전하고 순수한 선이 없고, 최고의 진리에도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도둑'은 질병, 사업 손실, 산업 붕괴, 전쟁, 죽음이다. 우리는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둑은 뚫고 들어온다. 빼앗기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소중한 사람, 위안이 되던 사람도 빼앗길 수 있다. 반면 하늘의 보물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빼앗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보관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늘은 죄도 부패도 들어오지 못하는 빛과 생명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이것을 다

2. 그 안에는 없앨 수 없는 부패가 섞여 있다
3. 몸, 아름다움, 재능까지 결국 모두 시든다
4. 도둑은 질병, 손실, 전쟁, 죽음이다
5.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이 보관하시니 안전하다

마태복음 6:19

좀, 동록, 도둑. 땅의 보물이 덧없음을 보여 주는 세 이미지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20

하늘의 보물에는 좀도 도둑도 미치지 못한다

>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베드로후서 1:4

세상의 것에는 정욕으로 인한 '썩어질 것'이 스며 있다

>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4:18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로마서 8:38-39

하늘의 보물이 난공불락인 이유.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디모데전서 6:16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 하늘은 순수한 빛의 영역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보관인이 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 3. 둘째 이유 ① — 땅의 보물은 마음을 사로잡는다

주님의 둘째 논거는 땅의 보물이 지닌 영적 위험, 곧 그 무서운 지배력이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고르신 두 낱말에 주목한다. 21절의 '마음'과 24절의 '섬긴다'다. 두 낱말 모두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는지 보여 준다. 세속성은 강력할 뿐 아니라 교활해서 대다수 사람의 생활을 통제한다. 그는 그 예로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할 때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든다. 이상주의는 왜 주로 젊은이의 것이고,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왜 냉소적이 되는가. 그는 우리가 모두 '땅의 보물'의 희생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전기를 읽어 보면 많은 젊은이가 밝은 비전을 품고 출발한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세속적인 철학에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무서운 죄에 빠지는 것과는 다르다.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의 중요한 무언가를 잃고 처음의 그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이것들은 감정, 애착, 감수성까지 정복해서 우리가

1. '마음'과 '섬긴다'는 지배력을 보여 주는 말이다
2. 세속성은 강할 뿐 아니라 교활하다
3. 성공과 번영이 사람을 조용히 바꾼다
4. 청년의 이상주의가 냉소로 식는 이유가 여기 있다
5. 땅의 것은 감정을 정복해 사랑하게 만든다

> **마태복음 6:21**
> 보물은 마음, 곧 감정과 애착을 끌고 간다
>
>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 **마태복음 6:24**
> '섬긴다'는 말이 이것들의 지배력을 드러낸다
>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요한복음 3:19**
> 사람은 어둠을 그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
>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 4. 둘째 이유 ② — 눈을 흐리고 의지를 움직인다

땅의 보물은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정신까지 지배한다. 22~23절의 눈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성한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신령한 사람의 눈이다. 나쁜 눈은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고 수정체가 흐린 눈이다. 편견과 정욕, 욕망에 물든 눈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 읽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고 지적한다. 주님은 보물 이야기를 하시는 중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뿐 아니라

이 흐려진 시력은 윤리에도 영향을 준다. 유리창을 깨고 보석을 훔치면 도둑이다. 그런데 내가 소득세를 조작해 속이면 “이건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합리화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세상의 보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더 고약한 것은 종교관까지 지배당한다는 점이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 봉사에서도 이것이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누가복음 21장이 경고하듯, 정신을 둔하게 하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함만이 아니다. 세상 근심, 생활에 안주하는 것, 가정생활과 지위와 위안거리를 즐기는 것도 똑같이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섬긴다'는 말에서 의지와 행동의 영역이 등장한다.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보물이 있는 곳인 마음이 정한다. 결국 땅의 보물은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한다.

1. 나쁜 눈은 욕망 때문에 흐려진 시각이다
2. 22~23절은 보물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
3. 탈세 같은 부정직도 그럴듯하게 합리화된다
4. 종교와 봉사까지 재물의 지배를 받는다(데마)
5. 마음이 생각을,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 **마태복음 6:22-23**
> 성한 눈과 나쁜 눈. 보물이 정신(시각)까지 지배한다
>
>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 **디모데후서 4:10**
>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떠났다. 종교적 삶도 지배당한다는 실례
>
>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 **누가복음 21:34-36**
> 방탕만이 아니라 세상 걱정도 마음을 둔하게 한다
>
>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24

'섬긴다'는 의지와 행동의 영역을 가리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5.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 양자택일

하나님과 재물은 모두 우리에게 '전체주의적 요구'를 한다. 사람 전체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세속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만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도 같은 요구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반드시 물질적인 의미로만 읽지 않는다. 다른 모든 의미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신다.

따라서 24절은 양자택일이다. 한쪽을 미워하면 다른 쪽을 사랑하게 되고,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경히 여기게 된다. 타협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는 여기서 날카로운 지적을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무신론적 유물주의'에 맹렬히 반대한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유물주의가 무신론적이라고 말한다. 유물주의 철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1. 하나님과 재물은 둘 다 사람 전체를 요구한다
2. 그러므로 24절은 양자택일이고 타협은 불가능하다
3. 모든 유물주의는 본질상 무신론적이다
4. 유물론에 반대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2:30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하나님의 전체적 요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19:21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무엇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0:37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물질 밖의 영역에도 미치는 요구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 6.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재물을 섬기는 것 — 가장 큰 모욕

로이드 존스는 노골적인 무신론적 유물주의보다 더 고약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유물주의다. 23절의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가 바로 이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말하고 가끔 예배에 가지만 실제로는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열왕기하 17장이 그 완전한 실례다. 앗수르가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민족들이 사자의 습격을 받자, 왕은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칠 제사장을 보낸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며 행한 일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다. 이어서 그는 한 농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암소가 송아지 두 마리를 낳자 농부는 한 마리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다. 어느 쪽인지는 나중에 정하자고 했다. 몇 달 뒤 송아지 한 마리가 죽자 그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이야기에 웃지 말라고 한다.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헌금이고, 좋아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줄인다. 땅의 것들에 대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절대적 요구에 기꺼이 굴복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는 각자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하며 설교를 맺는다.

1. 신앙의 언어를 쓰는 유물주의가 더 깊은 어둠이다
2. 사마리아 이주민은 여호와와 자기 신들을 함께 섬겼다
3. “주여, 주여”가 섬김의 증거는 아니다
4. 죽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송아지'다
5. 재물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 **마태복음 6:23**
>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더하다. 종교적 유물주의의 깊은 어둠
>
>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 **열왕기하 17:24-41**
> 여호와를 '그 땅 신'으로 덧붙여 섬긴 혼합 신앙의 실례
>
> 24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25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26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데려가되 그가 그 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28]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벧엘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29]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

열왕기하 17:33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겼다. 두 주인 섬기기의 그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마태복음 7:21-23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지가 판가름한다

[21]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6:24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누구를 섬기는가의 최종 질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죽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세속(세속성)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 특정한 죄 목록이 아니다.

좀과 동록
옷을 갉아먹는 벌레와 쇠붙이에 스는 녹. 땅의 모든 것에 스며 있는 부패를 가리킨다.

하늘의 보물
소유, 재능,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써서 하나님이 친히 보관해 주시는 영원한 보물.

성한 눈 / 나쁜 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맑은 시각과, 욕망과 편견 때문에 흐려지고 이중으로 보이는 시각.

재물
이 본문에서 주인처럼 사람의 섬김을 요구하는 돈과 땅의 소유.

전체주의적 요구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감정, 생각, 의지 전체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이 모두 이런 요구를 한다.

유물주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고방식.

나그네(체류자)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사람. 땅의 일에 관심은 두되 지배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명령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절박한 경고다.
- 땅의 보물은 반드시 썩고 빼앗긴다.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이 보관하시므로 안전하다.
- 땅의 보물은 마음, 정신, 의지를 차례로 사로잡아 사람 전체를 지배한다.
- 하나님과 재물은 둘 다 전부를 요구하므로 양자택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재물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모욕이다.
- 그러니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섬기느냐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